

LG전자, 광시야각 적용 슬림TV폰 출시

LG전자는 좌우 측면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는 초슬림·초경량 지상파 DMB폰인 슬림TV폰을 출시한다고 4월26일 발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슬림TV폰은 26만컬러의 2.2인치 QVGA급 광시야각 LCD를 채택하고도 120g의 무게에 두께가 19.6mm밖에 되지 않아 뛰어난 휴대성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디지털TV에만 적용해온 광시야각 LCD 구현 기능을 휴대전화 최초로 채택해 상하좌우 170도 옆에서도 선명한 시청이 가능해 기존 DMB폰의 가장 큰 단점인 측면 시청시 화질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개선했다.

또 세계적인 디지털TV 화질 개선 기술인 모바일 XD엔진(eXcellent Digital Engine)을 탑재해 뚜렷한 고화질의 TV시청을 가능하게 했으며 고휘도를 적용해 밝은 야외에서도 선명한 방송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등 최적의 화질을 구현했다.

아울러 국내 출시 휴대전화 중 최초로 오디오 채널을 수신하면서 교통방송의 CCTV 화면과 문자를 LCD로 볼 수 있는 DLS(Dynamic Label Service) 기능과 음악을 들으며 해당 가수의 앨범사진 등을 볼 수 있는 JSS(Jpeg Slide Show)기능을 제공한다.

이밖에 TV 시청 중 전화나 문자가 오면 화면 한쪽에 관련 내용이 표시돼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송신도 가능하며 최대 35분의 방송녹화, 화면캡처, TV 및 라디오 방송 모닝콜, 방송 자동종료 설정, TV Out 기능 등도 탑재됐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27>